

Invitation to be a Guest Speaker at 2020 Global Webinar on the
Online Grooming: Current State and Responding Strategies (2020.12.15.)

Outline for the 2020 Online Grooming Global Webinar

1. Objectives

- ICT의 발전으로 인해 여러 아동성착취 범죄가 변화하며 급증하고 있고, 아동대상 그루밍 또한 온라인 환경을 이용한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새로운 아동성착취의 형태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국제사회가 모두 연결된 오늘날, 웹을 이용한 아동그루밍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온라인그루밍은 그 위험성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N번방 사건과 W2V사건으로 인해 아동성착취 관련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아동성착취 물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 그루밍에 관한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부족을 개선하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며 나라별·국제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ECPAT Korea는 ECPAT International 회원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0 온라인 그루밍 글로벌 웨비나를 12월 15일에 주최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인터넷 네트워크망을 통해 확산되므로 한 나라에 국한된 범죄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그에 각국의 아동성착취 방지 기관들이 국제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이해도가 나라별로 다르고 대응방안 또한 차이가 있기에 장점을 나누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ECPAT 네트워크 회원들 간의 지식공유를 이루고 각국에서의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에 ECPAT Korea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심각성을 초기에 인지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2개 기관을 초청하여 1) 온라인 그루밍 수사방법(함정수사)와 2) 민간기업 온라인 성착취범죄 신고체계(CyberTipline)에 대해 공유하여 대응방안에 대한 시야를 넓이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온라인 그루밍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동아시아 3국(한국/일본/대만)의 온라인 그루밍 현황과 이슈, 대응체계를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2. Participants

- 3개국 발표자

ECPAT Korea (권현정/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부소장)

ECPAT Taiwan (Ms. Yi-Ling)

ECPAT/STOP Japan (Ms. Yanagihara)

- 미국기관 발표자(tent.)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ICAC) Task Forc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NCMEC)

- Target Group

*ECPAT International 회원기관, 아동보호관련 국내 NGOs, 유관기관(경찰, 법률지원 등)
대상 진행 (Not Open to Public: Zoom link will be shared separately)*

*ECPAT International: “End Child Prostitution and Trafficking”은 아동성매매·성착취 예방 아동보호 국제네트워크이며 현재 103개국의 121개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UN CRC의 자문기관으로 국제 보고서에 아동성보호 이슈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아동보호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아동성착취 관련 용어가이드라인]을 편찬하고, 인터풀과 [아동성착취물 연구보고서]를 집필하는 등 국제적 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CPAT is the only child right's organisation that is solely focusing on end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we are a growing network of over 121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 over 103 countries.

Together we advocate for a stronger legal environment to protect children; we raise awareness among the public about the issue; we partner with the private sector to prevent their services of being misused; we research to better understand this crime and we help survivors and victims to come to terms with what has happened to them – and better understand their rights.